

성동구 매봉산 치유숲길 ¹²

주민 건강 챙기는 숲길



걷는구간	옥수파크힐스아파트 124동 뒤 공원입구 → 치유숲길 만남데크 → 빗명상숲 → 기체조숲·단풍나무쉼터 → 숲길 → 명상의 숲 → 은행나무 쉼터 → 매봉산 팔각정 → 중구 황톳길 → 421번 버스종점
걷는거리	1km
소요시간	40분
추천시기	사계절
난이도	★ 초급코스

매봉산은 성동구, 중구, 용산구에 걸쳐있는 산으로 주택가와 가깝고 산세가 완만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 게다가 벗나무와 단풍나무 등 울창한 숲 사이로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어서 봄에는 꽃구경, 가을에는 단풍 구경으로 사람들이 늘 북적거리고 한강의 야경이 일품이라 그 가치를 더욱 인정받는다. 특히 해발 174m의 정상에 우뚝 서 있는 팔각정에 오르면 유유히 흐르는 한강의 물줄기를 굽어 볼 수 있어서 동네 뒷산치고는 제법 넓은 품을 지니고 있다.





매봉산 정상으로 이어지는 구간에 조성된 황톳길은 성동구와 중구 경계에 있다. 맨발에 닿는 황토의 감촉과 흙냄새로 숲의 매력을 한층 높여준다.

2018년, 매봉산에 주민들의 사랑을 독차지할 또 하나의 숲길이 탄생했다. 매봉산 자락을 따라 쉬엄쉬엄 걸으며 몸과 마음을 정화할 수 있는 '치유숲길'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마치 순간이동을 하듯이 아파트에서 바로 숲길로 빠져들어 흙길을 타박타박 걷다 보면 발바닥부터 시작해 온 몸의 감각이 살아나면서 저 멀리 새소리도 들리고 나뭇잎에 스치는 바람의 냄새도 느껴진다.

매봉산 치유숲길은 '산림치유'라는 목표를 가지고 주민들이 숲에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산림치유'란 숲에서 발생하는 음이온, 피톤치드 등 치유 성분을 받으며 신체활동과 명상을 하는 것으로 스트레스 완화, 집중력 향상, 면역력 증진 등 다양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 의미에서 매봉산은 인근 주민들에게 천금 같은 휴식처로 산림치유에도 최적의 공간이다.



- ☎ 421번 버스를 타고 옥수파크힐스아파트 정류장에서 하차 후 맑은샘어린이집을 지나 옥수파크힐스아파트 124동까지 걸어가면 공원 입구가 나온다.
- ☎ 02-2286-5656 성동구청 공원녹지과
- ① 이용시간 제한 없음
- ② 주차장 별도로 없음
- 매봉산 팔각정과 421번 버스 종점 사이에 화장실 있음
- 유모차와 휠체어 이용 불가능
- 애견 출입 가능(목줄 사용)



치유숲길은 산림욕 베드와 평상에 누워 따스한 햇살을 느끼며 명상할 수 있는 빛 명상 숲, 통나무 의자에 앉아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잠시 쉬어가는 쉼터, 나무에 기대어 숲의 기운을 얻을 수 있는 기체조 숲,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명상을 할 수 있는 명상의 숲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숲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로 구성되어 있다. 숲을 해치지 않고 최대한 자연 그대로 조성해 놓은 산책길 곳곳에는 주민들의 건강을 챙기고 배려하는 마음이 은근히 배어있다.